

# 무모한 한글 맞춤법 개정, 혼란만 부른다

맞춤법 바뀔 때마다 사전·교과서 고쳐...문화발전 저해할 뿐

김성재

일지사 대표

1933년 조선어 학회에 의해 제정되어 50여 년 동안 써 오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표준어 규정'과 함께 문교부 고시로 88년 1월 19일에 발표되고, 이듬해(1989) 3월부터 이를 시행해 오고 있다.

## 개약된 부분이 많은 한글 맞춤법 개정

많은 세월과 적잖은 나랏돈을 들여 개정한 한글 맞춤법은 개선된 것도 없지 않으나 개약된 부분이 도리어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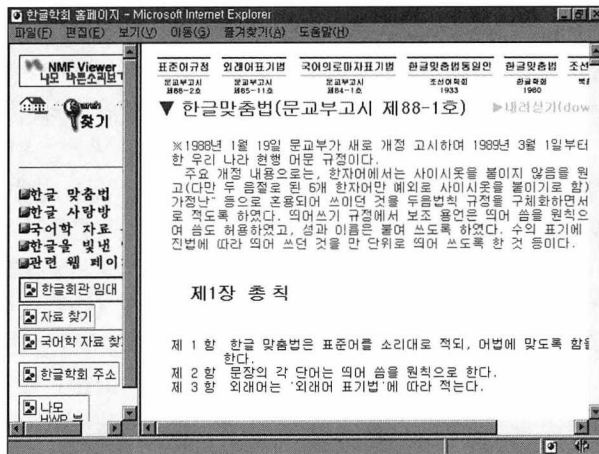
87년 4월 24일, 국어연구소에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시안을 발표하자, 한글 학회에서는 그해 5월 13일에 좌담회를 열어 마땅치 않게 고치려는 데를 하나하나 짚어 나갔는데, 이때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제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맞춤법을 고쳐야 하겠는가 하는 문젠입니다. 제 생각으로 고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글자 생활에 큰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굳이 고치려거든 정말로 국민들이 쓰기 쉬워야 하고, 학리에 맞아야 하며, 전통성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맞춤법은 50여 년이 지난 이제야 겨우 정착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힘써 익힌 결과인데, 이제 맞춤법을 조금이라도 망그러뜨린다면 국민들은 잘 따르지 않을 것이며, 이중 문자 생활을 하는 등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것입니다.

출판계로서도 큰 손실이 따릅니다. 가령, '넘어지다'를 '너머지다'로 고치려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필자 주: 고시된 것은 이렇게 고쳐지지 않음), 사전도 낱말의 차례를 바꿔야 하는 등 술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국어 사전뿐 아니라 교과서와 그에 따르는 학습참고서, 아동도서 등 수많은 책을 고쳐야 합니다. 출판계에서 지금 한해에 22,000여 종의 신간이 나오는데, 전에 나온 수십만 종의 책의 맞춤법을 고치기로 한다면, 신간은 당분간 거의 낼 수 없는 형편이 될 겁니다. 그것은 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적 이익에도 배척되는 일입니다. 정치적·경제적으로 좀더 안정된 뒤에 이런 개정 작업은 해

맞춤법을 개정한 뒤 수많은 편집자들이 새 맞춤법을 익히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지 모른다. 찍어 놓은 엄청난 수량의 책들이 휴지로 돼버려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보았다.



한글학회 홈페이지에 소개된 현행 한글맞춤법.

야 하리라고 봅니다."(한글 새소식 178호, 87. 6. 수록)

맞춤법을 개정한 결과는 필자가 염려했던 대로였다. 우선 국민들의 글자 생활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1백여 명의 학술논문에서조차 어떤 데서는 '더욱이'로, 어떤 데서는 '더우기'로 표기하며, 사람에 따라서도 '더욱이'로 쓰는 이와 '더우기'로 쓰는 이로 나뉘어 있다. 이것은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개정 전의 것과 개정 뒤의 것을 뒤섞어 뒤죽박죽으로 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많은 편집자들이 새 맞춤법을 익히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모른다. 지금까지도 새 맞춤법을 완전히 익히지 못하고 혼동하는 편집자들도 간혹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으로는 또한 얼마나 큰 손실을 보았는지 모른다. 찍어 놓은 엄청난 수량의 아동도서나 학습참고서가 휴지로 돼버린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른 출판사까지 생겼다. 개약된 맞춤법 개정으로 입은 손실은 수천억에 이른다고 한다.

## '더욱이, 일찍이'는 '더우기, 일찌기'로

개정된 맞춤법에서 학리에 맞지 않게 개약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중에서도 눈에 몹시 거슬리는 것은 '더우기'와 '일찌기'를 '더욱이'와 '일찍이'로 한 것이다.

개정된 한글 맞춤법에서는,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제25항

후반)"고 규정하면서 그 보기로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해죽이'를 들어 놓았다.

그런데, 위의 보기 중 '곰곰이, 생긋이, 오뚝이, 해죽이'는 '곰곰, 생긋, 오뚝, 해죽'이라는 부사에 다만 말가락(語調)을 고르는 접미사 '이'가 붙어서 같은 뜻의 부사로 쓰이므로 본모양의 어원을 밝히어 적는 것이 합당하나, '더우기'와 '일찌기'는 '더욱'이나 '일찍'에 '이'가 붙어서 된 부사라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둘 사이의 뜻도 다르므로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이 문법적 이치에 맞는다.

더구나, '일찌기'는 '일찍'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일찌기'가 줄어서 된 말로 보는 이가 있고, 뜻도 변해버린 말이다. 17세기 문헌에 지금의 '일찍'의 뜻의 '무'를 '일즈기'로, '일찌기'의 뜻의 '황'을 '일즈'로 번역한 용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훗날 두 말 사이에 뜻바뀔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어느 말이 먼저 쓰였는지를 가늠할 수 없다. 그런데다, 오늘날 '일찍'은 '일찌기'에 있는 '배우 오래전에'나 '그전에, 이전까지'의 뜻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이것으로 보아, '일찍이'는 어법에 전혀 맞지 않는 표기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株價, 代價'는 '줏가, 댓가'로 표기해야

개정된 맞춤법에서는 두 음절로 된 한자어의 경우 다음 한자어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기로 했다(제30항의 3).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뒷간(退間), 횡수(回數).

이들 말들은 원래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두 말 사이에 있어야 할 '의'도 대신 사이시옷이 끼어든 말이다. 곧 앞의 딸린[從] 명사가 뒤의 주장[主]이 되는 명사를 꾸미고 있으며, 뒷 말의 첫 글자인 'ㄱ, ㅂ, ㅅ, ㅈ'이 된소리인 'ㄱ, ㅃ, ㅆ, ㅉ'으로 소리남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사이시옷 음소리인 'ㅅ'을 받쳐 적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말들은 꽤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위의 여섯 가지에만 사이시옷 표기를 인정하여 표기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를 일이다.

가령, '住家'나 '大家'와는 달리, '株價'나 '代價·對價'도 수식적 합성어이며 뒷 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데도 '주가'나 '대가'로 표기하도록 돼 있다. 신문 지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들을 대할 때마다 되 읽어 봐야만 무슨 뜻의 말인지 알 수 있어 읽기를 더디게 하는데다 문법적으로도 위의 여섯 낱말과 왜 표기법이 달라야 하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다. 맞춤법은 말본에 맞아야 하며, 문맥을 보지 않고도 의미 전달이 바로 되도록 시각적인 효과도 지녀야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다시는 평지풍파 일으키지 않도록

98년 3월달에 국립 국어연구원에서는 국민의 어문 생활이 더 편해지도록 각종 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있었다. 맞춤법을 10년 만에 또 대폭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88년의 맞춤법 개정이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서둘러 다시 개정하려는 것도 무모한 일이다. 남북이 통일되면 어차피 또 개정해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극히 비합리적인 것만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처음 만들 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신중을 기한 것을 본받아야 한다. 지금은 맞춤법을 대폭 손질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킬 때가 아니다. 출판도 살아야 하고 나라도 살아야 할 때다. ❖